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주위의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 직접 구매하는 방식에서 온라인 구매로 구매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업의 네트워크화로 바어들은 자기 나라에서 온라인 검색을 통한 상품주문이 가능해졌다.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드자**

교육면에서는 원격강의가 가능해져 인터넷 교육이 물물 갖춰지고 있다. 종교계는 아직은 큰 변화의 물결은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사찰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소규모 사찰들도 속속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종교활동에 열심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려정보나 신명생활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이 공유하는 속도가 현격히 빨라지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신명생활도 눈에 띄어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님들이나 재가법사가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 설법하고 상담하는 사이버 포교가 활발해질 것이다.

그동안 편찮았는데... **고정관념 버려야**

터진 불자들의 외면으로 앞으로 어려움이 봉착하게 될 것이다. 사찰 역시 마찬가지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교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해내지 못하면 머지 않은 장래에 젊은 신도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편찮았는데..." 혹은 "신도 또는 회원들 뺏긴다"는 식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피력하기도 한다. 한국불교는 근대화에 실패함으로써 서구종교와의 경쟁에서 크게 뒤쳐졌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또 다시 눈앞으로 성큼 다가선 커다란 변화의 물결앞에 사찰이, 종단이, 그리고 불자 개개인이 미래불교의 모습을 알담하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문제는 변화된 사회환경에 하루빨리 적응하려는 고계의 의지다. 유권준(인터넷과 불교문화 홈페이지 운영)

이 연동기획은 독자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yjuju@buddhania.com)

일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인권위 살려야 한다”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보물’

재정난 심각 활동 저조... 불자들도 관심박

‘불교의 근본사상인 대자대비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인권침해, 생명경시 증조를 시정하여 건전한 민주사회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지난 90년 창립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스님·한상범)가 유병무실의 상태에 처해 있다. 불교인권위는 그동안 정신대위안부 할머니들의 안락처인 나눔의집 건립, 불교인권상 제정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었다. 그러나 98년에 이어 지난해 8월 공동대표 진관스님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 구속됨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불교계 밖의 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에 간사가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교인권위 전체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간사의 활동비도 몇 달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회활동으로 인권운동을 꼽으면서도 고계의 인권운동은 매우 저조했다. 불교인권위에 이어 3년 전 종단협의회 산하단체로 인권위원회가 구성됐으나, 간관만 내걸었을 뿐이다. 지난해 8월여명의 상담자가 찾는 등 현재

선학원 17일 이사회 **행자교육·수계식 논의**

선학원(이사장)은 17일경 이사회를 열어 제1기 행자교육원 및 사미 사미니 합동수계식과 따른 승의사와 교수사의 임명 등 행자교육원 운영, 사미·사미니 수계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선학원 이에 앞서 지난 1일 기관지에 행자교육원 개원을 공고하고 임명신청서 접수용 시작했다. 이번 행자교육원 임명자는 40여명이 될 것으로 선학원은 보고 있다. 선학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자교육은 다음 달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우이동 보광사에서 열리며, 13일 합동수계식을 봉행한다. 정성운 기자

회가 있으나 조직표상의 기구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인권 문제가 발생해서 대처하는 것도 주요한 사업이지만, 함께 인권운동을 할 수 있는 회원과 후원인들을 확보하는 것도 불교인권운동의 저변확대라는 점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단체간의 단절된 활동 양상도 불교인권운동을 합체에 빠지게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면, 북한동포돕기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사안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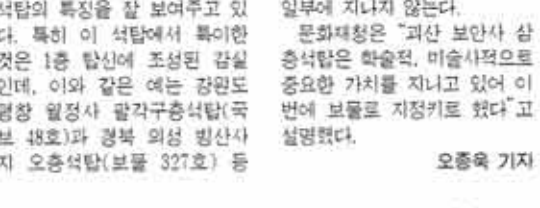
2000년 총선 불교연대는 발족 기자회견을 마치고 맑은 정지, 자진 참회라는 회호를 단 목어(木魚)를 조계사 대웅전에 부착하고 불자들로부터 낙선운동 지지 사명을 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낙천운동 종교계 확산

고계 21개 단체 '총선 불교연대' 결성
 불교단체들과 기독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낙천·낙선 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힘에 따라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 운동이 종교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본지 257호 19면 참조) 실천불교전국총회, '불교 바로세우기 재가연대'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2000년총선 불교연대'(상임공동대표 정화·박광서)는 9일 조계종포교원에서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낙

문화재청 지정에도

문화재청(청장 서경배)은 12일 충북 괴산군 청안면 민가 안에 있는 보안사 삼층석탑(사진)을 보물지정 예고했다. 이 탑은 고려시대 것으로 단층인 기반 위에 3층 탑신부와 노출된 반석으로 구성된 화강암 재질의 석탑이다. 이 탑의 기반은 네모난 모양에 4개의 돌로 구성돼 있고,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1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2·3층 탑신은 1층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조각 수법이 고려 중기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석탑에서 특이한 것은 1층 탑신에 조성된 감실인데, 이와 같은 예는 강원도 경창 일경사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과 경북 의성 평산사지 오층석탑(보물 327호)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은 학술적,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번에 보물로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종헌종법따라 사면”

조계종 해암종정 유시
 조계종 종정 해암스님이 사면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해암스님은 8일 해인사 원당암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 유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종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종헌종법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면 문제도 종헌종법에 의지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처님법이 있는만큼 하루속히 대중들과 논의해서 종단통합 방안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6면)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과 포교위원장 정영스님, 중앙종회의장 법종스님을 비롯 중앙종무원장 부장급 스님,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 탁발기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종무원장 정대스님은 하례법회 후 본사주지들의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종회의원이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한발짝 물러서서 정계지의 입장에서 사면문제에 임해주었으면 좋겠다. 종정예하의 유시의 말씀과 같이 종헌종법에 따라서 사면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지금과 같이 정계지가 많으면 종단의 안정은 요원하다"며 "분규의 불씨가 옮겨 안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대폭적인 사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평화통일 기원 1000일 정진 12면
 감은사지 서탑 기운다 19면

현대불교신문 (94.10 ~ 99.12) CD 나왔습니다

2000학년도 법사과정 경전 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수	내용
월요일	밀교의세계	허일범교수(진각대)	밀교개론과 대일경·금강정경의 핵심사상강의
화요일	법화경	박종교수(동산대)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화엄일일사상 강의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전경, 비교종교, 종론, 혜심일경, 대일경, 금강정경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고양대학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 불교고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0년 2월 7일~ 2000년 3월 4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통신반(30명)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3. 개강일시

2000년 3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졸업지적

3년과정(매주 2경전)을 이수한 분에게 전법사를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
☎ 732-1206 ~ 8 / FAX 732-1207

2000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0년 3월 4일(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향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장엄염불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임종·매장·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2월 7일(월)~ 2000년 3월 3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동산법당)

3. 입학금

일십만원

4.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5. 원서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 ~ 8 / FAX 732-1207
(10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

법사양성 전문도량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동산불교 의식교육원